

해남, 호남 최대 마한·백제 고분군 발굴

현산면 읍호리 문화재청 자문위·현장설명회

5-6세기 마한 대표 '신미국' 핵심 지역 증거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고분군 발굴 조사를 통해 호남 최대 규모의 마한·백제 고분군이 확인됐다.

해남군은 30일 "현산면 읍호리에 소재한 읍호고분군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일부 구역에 한해 긴급 발굴 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문화재청 자문 위원회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읍호리 고분군은 이번에 조사된 읍호고분 구역과 기존 보고된 고당고분 구역 등을 포함해 직선 거리가 3km(140만㎡)에 이르는 대규모 분묘 유적이다.

해남반도 및 전라도 지역에서 발견된

고분군으로는 최대 규모로 고분 조성은 최소 마한 시기에 해당하는 5세기 중엽 전후부터 6세기 후반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0여기에 가까운 분묘 흔적이 육안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현산면 읍호리 일대가 해남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마한 신미제국(新彌諸國)의 대표 주자인 신미국(新彌國)의 중심 세력과 관련된 핵심 지역임을 밝히는 구체적 증거가 되고 있다.

중국대륙과 한반도, 일본 열도를 잇는 동북아시아 국제교류 무역망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던 해남반

도는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현장이다.

해남은 3세기 중반 쇠퇴한 목지국을 대신해 마한의 맹주가 됐던 신미제국(신운신국, 침마다래)의 유력한 본거지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침명현(현재의 해남 현산면)과 읍이 비슷하고 백제가 침마다래를 공격하기 전 점령한 고해진과 가깝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읍호리 고분군은 발굴 조사를 통해 중국 대륙까지 별도 외교 정책을 펼쳤던 해남반도 마한 세력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위상과 정체성을 찾는 단초가 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고분군은 마한 중심 세력의 변화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도 관심을 모은다.

읍호리 고분군 일부 구역에서 진행된 1

차 발굴 조사에서는 집단 묘역임을 확인했고 최초 노출된 10기 고분군 중 6기에서 백제 사비기 석실분(묘)이 조사됐다.

석실은 백제 사비형으로 6세기 전반 이전 특징부터 6세기 중반의 전형적인 구조와 6세기 중반 이후 퇴화된 석실까지 사비기 석실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6세기 전반 이전에는 무덤 사방의 벽을 얇혀 쌓은 방식의 조민석으로 벽석 상부를 축조하는 특징이 있으며, 후반 이후에는 석실 하단의 앞벽에 크고 편평한 돌을 세워 축조하는 방식을 볼 수 있다.

읍호리 고분군 인근에는 군곡리 패총(사적 제449호), 월송리 조산고분(전남도기념물 제86호), 백방산성, 일평리 성지 등도 산재해 있어 기원전후부터 600여년 가까이 고대 세력의 중심지가 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해남군이 최근 호남 최대 규모의 마한·백제 고분군이 확인된 현산면 읍호리 고분군에서 문화재청 자문 위원회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이번 발굴 조사는 고분군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일부 구역에 한해 긴급 실시한 것으로 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 조사와 보존 대책 수립을 통해 해남반도 마한 세력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읍호리 고분군을 비롯해 해남반도에 수많은 마한 관련 문화재가 밀집 분포한다는 것은 해남이 마한시

기 해양문화의 요충지이자, 마한의 중심지임을 확인하는 귀중한 자료"라며 "고분군의 범위가 광대해 도굴 등 도괴 훼손 위험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학술 발굴 조사와 보존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한편, 마한의 전모를 추적해 역사적 위상을 제고하고 대국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무안군, 찾아가는 건강버스 호응 무안군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공중보건인사와 간호사, 운동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들이 11개 보건진료소 마을을 방문해 진료를 실시하는 서비스다. 또 치과진료가 가능한 이동버스에서 구강 검진, 불소 도포,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간단한 건강검사와 스트레칭을 교육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 2주 연기

내달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개최 예정

함평군은 3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관광객 안전을 위해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2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개최 예정이던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2주 뒤인 11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열린다.

축제 일정 연기는 추석 연휴 이후 대

폭 증가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전국 지자체 축제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결정됐다.

군은 중대본의 축제 취소·연기 권고에 따라 지난 최근 이들 간 국향대전 추진 검토를 위한 긴급회의와 합평축제관

광재단 이사회를 차례로 열어 국향대전 개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안심축제를 위해 국향대전 기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은 전사·관람 위주로만 진행되며 1만2천명까지 입장 가능한 행사장 수용인원도 15㎡ 당 1명을 적용해 4천명으로 제한한다.

이상익 군수는 "중대본 방침에 따라 축제 개최 일정을 연기한 만큼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 '안심축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취소

코로나19 장기화 지역사회 안정 위해 결정

완도군은 30일 "전남도와 공동 주최하는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밝혔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14년,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아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1년 4월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해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 개최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고 국내·외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박람회 개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최 여부에 대해 감염병, 방역

등 전문가 조언과 군민, 향우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최근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국민 안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신우철 조직위원장은 "박람회는 취소하지만 해조류 산업 발전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출상담회 개최, 라이브 커머스 등의 대체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영암군, 참여숲 공모사업 선정

신북 월평리 등 2곳...3억8천만원 확보

영암군은 30일 "2022년 '숲속의 전남 주민 단체 참여숲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억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단체 참여숲은 주민 또는 단체가 직접 제안해 숲을 조성·관리함으로써 주민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아

름답고 가치 있는 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신북면 월평리(신북면 자율방재단), 서호면 효성리(서호면 효성마을회) 등 2개소다. 특히 신북면 월평리는 올해 1차 경관조성 사업이 완료

된 곳으로 영암군은 내년에도 나무 심기, 시설물 설치 사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아름답고 안락한 녹지 경관을 군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숲인 만큼 지역 주민 모두 나무를 심고 가꾸고 지키는 일에 적극 힘써 달라"며 "사업 실시설계 시 전남도 숲속의 전남협의회와 적극 소통으로 고품질의 아름다운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봉영기자

영광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박차

영광군은 30일 "최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46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벽화 그리기, 꽃밭 조성 등 마을 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영광에서는 46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벽화 그리기, 꽃밭 조성 등 마을 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별 추진반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

쳐 마을가꾸기 방향성을 잡는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되살리고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기자

상가 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당진신축 (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배,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사비없음)</p> <p>010-6670-9800</p>	<p>투자확신/강력추천!</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p> <p>(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 월수익 750만</p> <p>◆ 연수익 9천만</p> <p>◆ 매매13억(용6억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신항10분, 화력발전소 5분</p> <p>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p> <p>① 기초반,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 (직업가능,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컴퓨터제공,매주1회 물건스터디</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 서구 동천동(아파트)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5천 (10/6) 서구 농성동(근린주택)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4억5천 (10/20) 동구 계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10/20)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8천9백 (10/29)</td> </tr> <tr> <td>전남</td> <td>화순군 백아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2억7천 → 최저가 7천 (10/12) 곡성군 곡성읍(숙박시설) ▶ 감정가 1억 → 최저가 7억4천 (10/27)</td> </tr> <tr> <td>시외</td> <td>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 인천 부평구 (근린시설) ▶ 감정가 38억 9천 → 최저가 19억 (10/19)</td> </tr> </table> <p>062-382-5500</p>	광주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 서구 동천동(아파트)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5천 (10/6) 서구 농성동(근린주택)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4억5천 (10/20) 동구 계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10/20)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8천9백 (10/29)	전남	화순군 백아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2억7천 → 최저가 7천 (10/12) 곡성군 곡성읍(숙박시설) ▶ 감정가 1억 → 최저가 7억4천 (10/27)	시외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 인천 부평구 (근린시설) ▶ 감정가 38억 9천 → 최저가 19억 (10/19)
광주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 서구 동천동(아파트)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5천 (10/6) 서구 농성동(근린주택)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4억5천 (10/20) 동구 계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10/20)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8천9백 (10/29)								
전남	화순군 백아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2억7천 → 최저가 7천 (10/12) 곡성군 곡성읍(숙박시설) ▶ 감정가 1억 → 최저가 7억4천 (10/27)								
시외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 인천 부평구 (근린시설) ▶ 감정가 38억 9천 → 최저가 19억 (10/19)								